

16세기 여성 복식에 관한 연구

- 남양홍씨 몽남(夢男: 1534~1574) 배위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

송 미 경

경기도 박물관 학예연구팀 연구원

Study on the Excavated Costumes of *Yeon-An Kim* Clan, a Wife of *Mong-Nam* (1534~1574), who Belongs to *Nam-yang* *Hong* clan

Mikyung Song

Researcher, Gyeonggi Provincial Museum Curatorial Team

(2007. 8. 16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xcavated female shroud while moving the graveyard of *Nam-yang Hong* clan in *Yang-pyeong, Gyeonggi* Province to other place. It is acquired as *Yeon-An Kim* clan who is a wife of one of *Nam-yang Hong* clan and history is estimated to 16th Century.

Significance of this excavated female costumes is, 1) a *Dan-ryeong*, which is typical costumes during 16C. for woman is excavated. It is embroidered with peacocks shaped badge in fore and backside on a clothes, which is understood as the symbol of highest status but it is considered as much higher than actual status of her husband. From this, we can assume that burial costumes and regulation for actual clothes by the status are not exactly matched. 2) Various form of *Chima* and *Jegori* also found in the grave along with a Buddhist banner(幡) printed with *Darani* (多羅尼) which is unusual in Chosun dynasty, under confucian influence. 3) An embroidered design pillow was collected first time, which make us enable to understand the in-house life style of 16C.

Key words: funeral rite(상례), shroud(염습의), excavated costume(출토복식), female costumes of 16th century(16세기 여자 복식)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대상유물은 2000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산 316번지 남양홍씨 예사공파(禮史公派) 묘역에서 이장 도중 출토된 16세기 복식류를 비롯한 77점이다.

16세기 여자 복식의 출토 경우는 다수 보고된다.¹⁾ 그 가운데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파평윤씨(?~1566) 복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장묘에서 수습되었으며, 수습과정에서 남녀복식이 섞인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연안김씨 복식 유물은 단장(單葬)에서 수습되어 여자의 상례에 사용된 복식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비록 정확한 염습의 구분은 곤란하지만 습의에서 보공까지 상례에 사용된 복식과 치관제구의 대부분이 수습되었다. 연안김씨의 복식의 특징은 습의(襲衣)에 사용된 직금 공작흉배 부착 단령과 다양한 속옷 상의류, 그리고 자수 베개와 번(幘)이 상례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16세기 여성복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16세기 상례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연안김씨 묘 출토 복식 보고서 발간²⁾ 이후 수정된 사항을 보완하여, 다른 묘에서 출토된 16세기 여자복식과 비교하여 연안김씨 묘 출토 복식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기도박물관에서 수습한 유물은 복식·명기·총통 등으로, 피장자들은 홍윤(洪潤:1515~1560)과 배위 영천이씨(永川李氏), 홍윤의 아들인 홍몽남(洪夢男:1534~1574)과 배위 연안김씨로 확인되었다. 기증받은 복식은 홍몽남의 배위 증(贈) 숙부인 연안김씨의 묘에서 수습한 복식과 치관제구이다.

2. 연안김씨의 행력

남양홍씨 예사공파(禮史公派) 족보에는 묘주인 연안김씨의 생몰년은 기록되지 않고 10월 6일에 졸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연안김씨의 남편인 홍몽남은 증중 29년(1534)에 출생하여 선조 7년(1574)에 41세로 졸했다. 홍몽남은 연안김씨 외에 광산김씨를 계배

(繼配)로 두었다. 이 사실을 근거하여 연안김씨의 몰년은, 적어도 남편의 몰년보다 이른 것으로 생각되며, 홍몽남의 몰년인 1574년 이전인 16세기 중기로 추정된다. 이장사의 증언에 따르면 연안김씨는 젊은 여인이었다고 한다. 연안김씨의 아버지는 전침(典籤) 김부(金溥)이며, 할아버지는 영의정 김근사(金謹思)이다. 홍몽남은 사후에 승정원 좌승지로 증직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안김씨와 광산김씨도 숙부인으로 증직되었다. 연안김씨의 남편인 홍몽남과 시부인 홍윤(洪潤)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을 찾기가 힘들지만, 연안김씨의 친정아버지와 조부는 조선왕조실록에 수회 등장한다. 당시에는 시가인 남양홍씨 가문보다 친가였던 연안김씨가 세도가였던 것 같다. 이는 연안김씨 묘에서 출토된 찢어진 만사에서 이런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³⁾

II. 연안김씨 묘 출토 복식

1. 연안 김씨 묘 출토복식의 종류⁴⁾

연안김씨의 유물은 복식 7종 53점과, 치관제구 24점으로 이 가운데 치관제구를 제외한 복식류는 포류 3종 5점: 여성단령 1점(No. 565) 장옷 3점(No. 563·572·583), 액주름 1점(No. 562)과 상의류 2종 24점 : 적삼류 3종 7점(No. 537·538·555·556·595·584·536), 저고리류 4종 17점(No. 530·531·541·553·568·534·544·545·527·532·533·542·566·570·571·546·596), 하의류 2종 13점 : 치마3종 7점(No. 561·582·559·581·554·564·581), 바지 6점(No. 551·585·586·587·588·589), 단령 대 1점(No. 535), 저고리 감 1점(No. 569), 버선 1쌍(No. 580), 습신 1쌍(No. 567)이다. 그 외 보공용으로 흉배 1쌍(No. 524), 토시 1점(No. 597), 베개 1점(No. 579), 번(幘) 1점(No. 549), 직물 3점(No. 525·526·575)으로 5종 8점이다. 그 외 치관제구로 만사 2점(No. 598·599), 명정 1점(No. 550), 구의(柸衣) 1점(No. 528), 편의 1점(No. 540), 자리 밑 천 1점(No. 458), 자리 1점(No. 547), 베 자리 1점(No. 552), 대렴금 1점(No. 593), 대렴보 1점(No. 573), 대

려교포 3점(No. 577·591·592), 소렴금 1점(No. 529), 소렴 황교 1점(No. 558), 소렴 중교 1점(No. 557), 베개용 1점(No. 543) 오낭(No. 574), 과두 1점(No. 539), 삼 1쌍(No. 594), 관내 배접용 직물(No. 560), 천금(No. 573), 이불(No. 590), 엽포(No. 600), 현훈 1점(No. 601)이다. 이 연구에서는 치관제구를 제외한 복식만 다루기로 한다.

연안김씨 복식에 사용된 직물은 단(段)으로 만든 옷이 9벌, 주(紬)로 만든 17벌, 화문초(花紋綃)가 1벌, 화문라(花紋羅)가 2벌, 화문사(花紋紗)가 2벌, 마포(麻布)가 3벌, 면포(綿布)가 4벌, 저포(苧布)가 5벌로 다양한 직물이 고루 사용되었다.⁵⁾

2. 연안김씨 습의(襲衣)

연안김씨의 복식은 이장이 끝나고 문은 상태에서 수습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염습의의 용도는 알 수 없다. 상의류는 이장 시 칼로 훼손된 부분이 동일하고, No. 544~546은 한꺼번에 벗겨져 있었다. 상의는 제일 속에 No. 595를 입고 그 위에 No. 584·536·544·545·546 순서로 입었는데 이는 적삼류와 저고리 그리고 당한삼이다. 그 위에 No. 583 장옷을 입고 예복으로 No. 565 여성 단령과 No. 535 대대(大帶)를 착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의는 습의에 사용된 바지는 한 허리에 5벌이 패매어져 있어 착용순서를 알 수 있었다. 제일 속에 No. 585를, 그 위에 No. 586~589의 단속곳형 바지를 입었다. 치마는 수습당시 사진으로 미루어, No. 559·581·582가 습용으로 추정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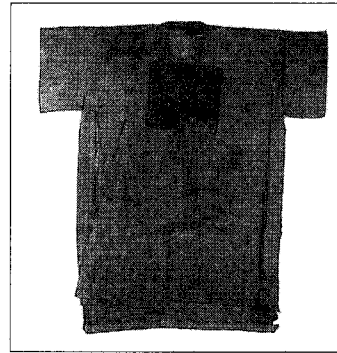
3. 연안김씨 묘 출토 복식의 고찰

1) 포류(袍類)

연안김씨 묘에서 출토된 포류는 여성단령 1점과 장옷 3점, 그리고 수례지의(褙禮之衣)로 생각되는 액주름 1점으로 총 5점이다.

(1) 여성단령(그림1)과 단령 대대

여성단령은 조선시대 중기의 대표적인 여성예복으로 사용되었다. 홑옷이며, 소매와 무·전단후단형·



〈그림 1〉 No. 565 단령

넓은 옷고름·대대 등의 특징이 동 시대의 남자 단령과 구별된다.

여성단령의 명칭과 착용여부는 아직도 학자 간에 이견이 많은 실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송미경은 여성단령이 조선시대 초기 문헌의 단삼(團衫)이나 원삼(圓衫)으로 생각하며, 여성단령이 18세기 이후의 원삼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 예복으로 착용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한다.⁶⁾ 그러나 박성실은 여성 단령을 습의로 착용한 공통점과 성글게 바느질된 점을 들어, 남성용 단령을 여성용의 수의로 개조한 것으로 생각하여 장속(葬俗)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다.⁷⁾ 여성단령이 출토된 상한연대는 15세기 말~16세기 초로 추정되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유물⁸⁾이며, 하한연대는 장기정씨(1565~1614)의 출토복식이다.⁹⁾

연안김씨의 단령(No. 565)은 직금 공작홍배가 부착된 화문라(花紋羅)로 만든 홑옷이며, 뒤가 긴 전단후단(前短後長)형으로 13.5cm의 앞뒤 길이 차이가 있다. 소매는 수구가 이중으로 접혀있으며 직배래이다. 무는 3중 접음 무로 진동 아래 8.5cm 이하에는 트임이 있다. 옷고름은 떼어졌으나, 8cm 나비의 자색 옷고름의 흔적이 있다. 깃에는 매듭단추가 달려 있고, 어깨 안쪽에는 가늘고 긴 끈이 1쌍씩 달려 있어 옷의 품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화문단으로 만든 단령의 대대(No. 535)는 중간에 꿰어진 상태로 수습되어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으나 나비 4cm 길이 37.5cm와 22cm가 남아 있다. 단령에는 가로 36cm, 세로 33.5cm의 직금공작홍배가 부착되어 있다. 공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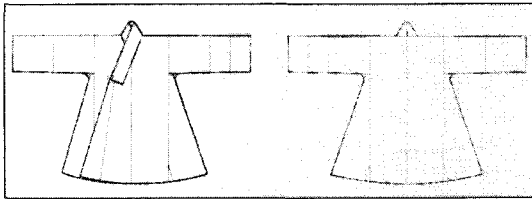
〈표 1〉 연안김씨 묘 출토 장옷의 치수와 특징

| 유물번호 | 구성 | 소재 | | | 치수(cm) | | | | | | 비고 |
|---------|----|----|-----|----|--------|------|------|----|----|------|---------------------|
| | | 길 | 깃 | 안감 | 길이 | 화장 | 고대 | 품 | 진동 | 수구 | |
| No. 583 | 홀 | 저포 | 저포 | - | 122.5 | 92.5 | 17 | 63 | 32 | 30 | 단령의 받침옷일 것으로 추정. 습용 |
| No. 563 | 습 | 면주 | 주 | 주 | 120 | 95 | 18 | 62 | 30 | 28 | 대렴용 |
| No. 572 | 습 | 토주 | 화문단 | 주 | 128 | 98 | 17.4 | 64 | 31 | 30.5 | 염용 |

홍배는 단종 2년(1454) 때 문관 1품의 홍배로 제정되었으며, 연안김씨 단령에 부착되어 있는 공작홍배와 문양배치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정탁(중종21~선조38년: 1526~1605)의 초상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⁰⁾

여자 단령의 치수는 길이 앞 138.5cm, 뒤 152cm, 품 102cm, 고대 18cm, 진동 45cm, 수구 45cm, 깃 나비 2.5cm, 깃 길이 138cm이다.

(2) 장옷(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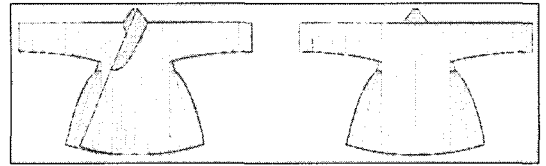


〈그림 2〉 No. 572 장옷

연안김씨의 묘에서 출토된 장옷은 모두 3점 〈표 1〉으로 1점(No. 583)은 홀 장옷이며, 2점(No. 563·572)은 습 장옷이다. No. 583 홀 장옷 같은 경우에는 습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No. 563은 1로 찢어 대렴에 사용하였다. 장옷 3점 모두 연안김씨 묘에서 출토된 복식과 마찬가지로 옷고름과 동정이 떼어져 있으나 No. 572에는 동정의 일부가 남아있다. 연안김씨의 장옷은 거들지는 없고 태수만 달려있다. 광주이씨 언옹 및 자부(子婦) 청주한씨(1550년대 추정)의 장옷과 물년이 1566년인 파평윤씨의 장옷도 같은 소매 구성을 보인다.¹¹⁾ 이를 볼 때 16세기 중기의 장옷은 거들지가 없고, 태수만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액주름 (그림 3)

연안김씨 묘에서는 액주름(No. 562)이 1점 출토되



〈그림 3〉 No. 562 액주름

었다. 수례지의(繵禮之衣)이다. 대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착용을 많이 하였는지 매우 낡았으며 오염이 심하다. 연안김씨 묘에서 출토된 복식 가운데 유일한 습 누비옷이다. 결감·안감 모두 거친 주(紬)로 만든 액주름의 길은 간격 5~6cm로 누웠고, 끝동은 2cm, 깃은 1.2cm 간격으로 누벼 리듬감이 느껴진다.

액주름의 치수는 길이 108cm, 화장 96.5cm, 품 56cm, 고대 23cm, 진동 31cm, 수구 23.5cm, 깃 나비 11.5cm, 깃 길이 109.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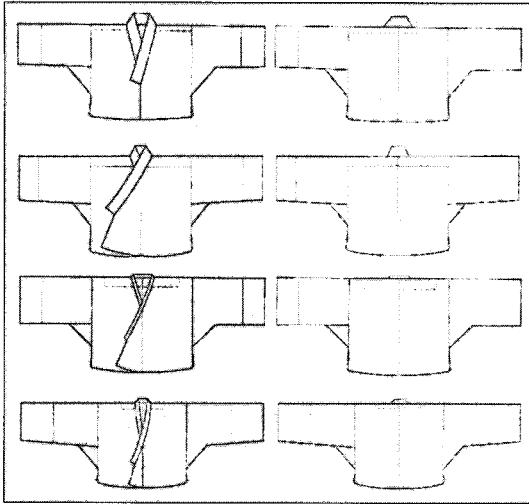
2) 상의류

상의류에는 적삼류와 저고리류가 있으며 총 25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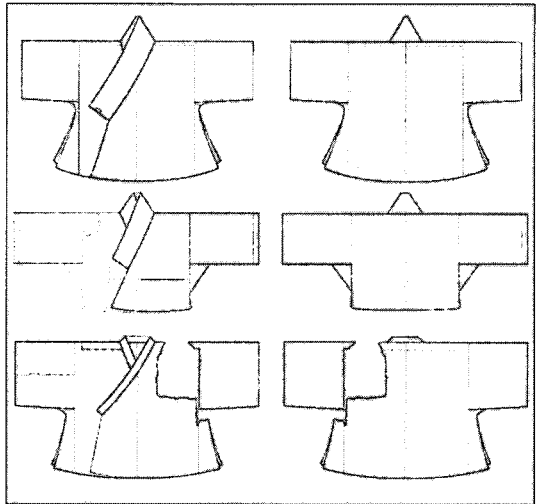
(1) 적삼류 (그림 4·5)

연안김씨묘에서 출토된 적삼류〈표 2〉는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보공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전형적인 16세기 중기 묘에서 출토되는 마포와 저포로 만든 적삼〈그림 4〉류와,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 습의(襲衣)로 사용된 화장이 짧은 주(紬)로 만든 적삼류〈그림 5〉가 있다.

연안김씨 묘에서 수습된 적삼류는 7점(No. 537·538·555·556·536·584·595)으로, 마포와 저포의 흘적삼 4점과 주(紬)로 만든 겹적삼 1점과 흘적삼 2점이다. 적삼류의 길이는 마포와 저포 적삼은 58cm 내외이고, 주(紬)로 만든 습용 적삼은 63~72.5cm이



<그림 4> No. 537 · 538 · 555 · 556 적삼



<그림 5> No. 536 · 584 · 595 적삼

<표 2> 연안김씨 묘 출토 적삼류의 치수와 특징

| 유물번호 | 구성 | 소재 | 무모양 | 치수(cm) | | | | | | | 비고 |
|---------|----|----|-------------|--------|------|------|----|----|------|------|--------|
| | | | | 길이 | 화장 | 깃나비 | 고대 | 폭 | 진동 | 수구 | |
| No. 537 | 홀 | 마포 | 비대칭 삼각무 | 57 | 79 | 7 | 12 | 62 | 25 | 25 | 보공용 |
| No. 538 | | | 접음 삼각무 | 58 | 83.5 | 7 | 15 | 64 | 28 | 26 | |
| No. 555 | | 저포 | 비대칭 삼각무 | 58 | 79 | 2.8 | 14 | 64 | 28 | 28 | |
| No. 556 | | | | 58 | 91 | 2.8 | 13 | 64 | 31.5 | 26 | |
| No. 536 | 홀 | 주 | 'ㄱ' 자형 한쪽 무 | 72.5 | 61 | 13.5 | 17 | 60 | 32.3 | 32.5 | 습용(襲用) |
| No. 584 | | | 접음 삼각무 | 63 | 58.2 | 11.5 | 18 | 57 | 31 | 31 | |
| No. 595 | 겹 | | 'ㄱ' 자형 한쪽 무 | 63 | 58.2 | 11.5 | 18 | 57 | 31 | 31 | |

다. 화장은 마포와 저포로 만든 홀적삼은 79~91cm 이나 주(紬)적삼의 화장은 58~61cm로 짧은 편이다. 깃 모양은 모두 목판깃이나 깃 나비로 나누면 3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① 2.8cm의 좁은 깃 나비는 No. 555 · 556 · 595가 해당된다. ② 7cm의 깃 나비 적삼은 No. 537 · 538이며 ③ No. 536 · 584는 습에 사용되었으며 16세기 중기 여자 저고리 깃 나비처럼 11.5~13.5cm로 넓은 편이다. 연안김씨 묘 출토 적삼의 겨드랑이 무 형태는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 16세기 적삼에서 흔히 보이는 겨드랑이 삼각무가 달려 있으나, 비대칭으로 왼쪽 길에 붙은 소매는 이음선이 있는 형태이다. No. 537 · 555 · 556이 이에 해당한다. ② 접음 삼각무가 있는 적삼은 No. 538 · 584이며 ③ 장저고리의 무와 같은 형태인 '한쪽 무'가 달려 적삼

은 No. 536 · 595이다.

(2) 저고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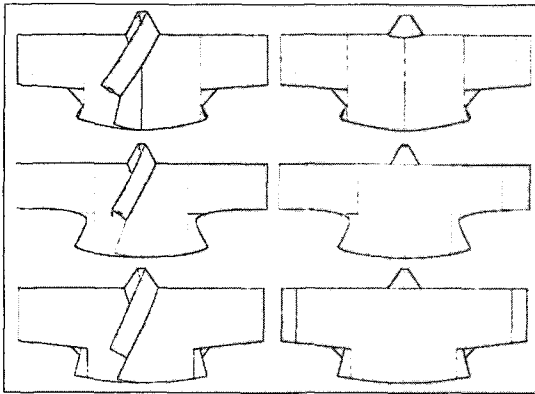
박성실은 조선시대 중기 여자저고리를 저고리를 기준으로 길이 50cm 내외는 단(短)저고리, 60~70cm의 중(中)저고리, 80~90cm의 장(長)저고리¹²⁾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라 연안김씨 묘에서 출토된 저고리를 분류하면 단저고리가 5점, 중저고리가 1점, 장저고리가 9점이 있으며, 홀으로 된 장저고리형의 당한삼(唐汗衫) 2점, 그 외 장저고리감으로 마름질 해 놓은 것이 1점이 있다.

① 단저고리류(그림 6)

연안김씨 묘에서 출토된 단저고리<표 3>는 5점

〈표 3〉 연안김씨 묘 출토 단저고리의 치수와 특징

| 유물 번호 | 구성 | 깃모양 | 무모양 | 소재 | | | 치수 (cm) | | | | | | 특징 |
|----------|----|-------------|----------|-----|-----|--------|---------|--------|----|--------|--------|--------|-------------------|
| | | | | 길 | 깃 | 안 감 | 길이 | 화 장 | 폭 | 고 대 | 진 동 | 수 구 | |
| No. 530 | 겹 | 목 판 깃 | 삼각형+삼각형 | 운문단 | 화문단 | 주 | 51.5 | 68.2 | 64 | 18.5 | 30 | 26 | 깃, 섶, 무, 끝동 동색 |
| No. 531 | | | 'ㄱ' 자형 | 토주 | 토주 | 주 | 55 | 70 | 62 | 19 | 29 | 27 | 깃, 섶 동색 |
| No. 541 | 숨 | 목 판 깃 | 'ㄱ' 자형 | 토주 | 화문단 | 주 | 58.5 | 78.5 | 59 | 19 | 30.3 | 28 | 깃, 끝동 동색 |
| No. 553 | | | 'ㄱ' 자형 | 토주 | 토주 | 마 포 | 56 | 76 | 62 | 18 | 31 | 28 | 깃, 끝동 이색 |
| No. 568 | | | 사다리꼴+삼각형 | 운문단 | 화문단 | 주 | 51 | 68 | 59 | 18 | 31.5 | 27 | 깃, 무 동색, 끝동 이색 |



〈그림 6〉 No. 530 · 531 · 568 단저고리

(No. 530 · 531 · 541 · 553 · 568)으로, 길이는 51~58.5cm이며 화장은 68~78.5cm이다. 진동아래 무는 사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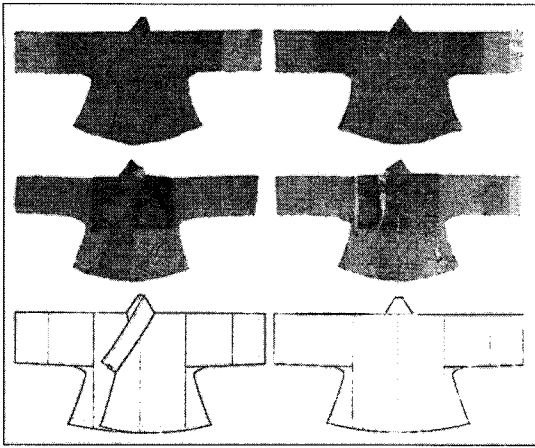
꼴과 삼각형무가 달려 있거나, '한쪽 무¹³⁾'가 달린 것도 있다. 진동아래 옆선에 트임이 있는 것이 1점이며, 나머지는 모두 막혀있다.

② 중저고리와 장저고리(그림 7)

연안김씨 묘에서 수습된 중저고리(표 4)는 1점 (No. 534)이다. 중저고리는 길이 72cm이며, 옆이 막혀있다. 이러한 길이의 옆이 막힌 저고리를 결막이¹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장저고리는 9점으로 길이 78~81.5cm이며 옆이 트여있으며, 겹저고리 2점(No. 544 · 545)과 숨저고리가 7점(No. 527 · 532 · 533 · 542 · 566 · 570 · 571)이 있다. 무는 'ㄱ' 자형 한쪽 무' 모양에 옆트임이 있는 모습이며, 깃과 섶·무의 안감에는 매우 고운 세주를 사용하였다. No. 532저고리는 앞 뒤 길의 상부가 저고리 길이와 다른 색상과 옷감으

〈표 4〉 연안김씨 묘 출토 중저고리와 장저고리의 치수와 특징

| 유물 번호 | 구성 | 깃 모양 | 무 모양 | 소재 | | | 치수 (cm) | | | | | | 특징 |
|----------|-------------|-------------|---------------|------|------|--------|---------|--------|------|--------|--------|--------|---------------------------|
| | | | | 길 | 깃 | 안 감 | 길이 | 화 장 | 폭 | 고 대 | 진 동 | 수 구 | |
| No. 534 | 겹 | 목 판 깃 | 'ㄱ' 자 형 | 주 | 주 | 주 | 72 | 79 | 58 | 18 | 33 | 31 | 옆이 막힌 숨의 |
| No. 544 | | | | 운문단 | 화문단 | | 80 | 91.5 | 63 | 18 | 33 | 29.5 | No. 22는 끝동에 많은 조각으로 이음 |
| No. 545 | 숨 | 목 판 깃 | 한 쪽 무 | 화문단 | 화문단 | 주 | 79 | 93 | 71 | 18.6 | 35 | 29 | |
| No. 527 | | | | 화문단 | 화문단 | | 78.5 | 87 | 60 | 19 | 31 | 30 | |
| No. 532 | | | | 운문단 | 화문단 | | 78 | 91.5 | 58 | 18 | 37 | 29.5 | 앞뒤 길 상부에 이색 옷감사용 |
| No. 533 | | | | 토주 | 토주 | | 79.5 | 90.5 | 61 | 20 | 35.5 | 31 | 전체 동일한 감 |
| No. 542 | | | | 면주 | 면주 | | 79 | 99 | 66 | 19 | 34.5 | 30.5 | 깃 이색 |
| No. 566 | | | | 주 | 주 | | 78 | 99 | 68 | 19 | 34 | 25 | 소매의 안감은 고운 모시 |
| No. 570 | | | | 토주 | 토주 | | 81.5 | 101 | 66 | 19 | 31 | 29 | 끝동 이색 |
| No. 571 | 길 연 결 | 화문단 | 화문단 | 79.5 | 88.5 | 71 | 20 | 33 | 29.5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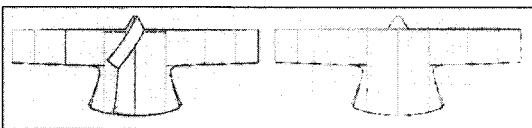


〈그림 7〉 No. 527 · 532 · 534 저고리

로 만들어져 있어, 문헌에 있는 다양한 저고리 명칭¹⁵⁾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측한다.

안동시 정상동의 16세기 중기 일선문씨 묘 출토복식 중에는 길이가 길고 옆이 트인 장저고리가 12점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⁶⁾ 이와 비교하여 17세기 전기의 무덤에서는 옆트임이 있는 장저고리가 1~2점만 수습되며 예복으로 입혀진다. 1614년이 물년인 장기정씨의 유물에는 옆트임 장저고리 1점이 수습되었고, 장옷 위에 입혀진 상태로 대렴에 사용되었다.¹⁷⁾ 또 김확(金穰)의 배위 동래정씨(1567~1631)의 저고리 13점 가운데 옆트임이 있는 긴 장저고리형태의 당의는 2점으로, 습에 사용되었다.¹⁸⁾ 이를 볼 때 연안김씨의 장저고리는 17~18세기의 당의로 변화하는 과도기 형태임을 알 수 있다.

③ 당한삼(그림 8)



〈그림 8〉 No. 596 당한삼

연안김씨 묘에서 수습된 홀 장저고리형은 2점(No. 546 · 596)으로 소매가 다른 저고리보다 유난히 길어 당한삼(唐汗衫)이라고 명명하였다. 사(紗)로 만든 당한삼은 《인목왕후 빈전도감의궤》에도 기록되어 있

다. No. 546은 길과 소매는 화문초(緞), 한삼에 해당되는 끝동은 무문사로 만들었으며 습용이다. No. 596은 길은 운문사, 소매에는 무문사와 운문사가 교대로 사용되었다. 2점 모두 바느질이 매우 고우며, 도련과 싹 등은 말아 감치기를 하여 가장자리가 말려 들어가 있다. 화장이 길어 한삼(汗衫) 기능을 했고 저고리 가운데 제일 위에 입었던 옷으로 짐작된다.

당한삼의 치수는 길이 77~79cm, 화장 108~112cm, 품 55~56.5cm(무 제외), 고대 17~18cm, 진동 32.5~33cm, 수구 26~28.5cm, 깃 나비 11.5~12cm이다.

④ 저고리감

저고리감 1점(No. 569)은 소화문단으로 저고리를 만들기 위해 마름질을 해 놓은 옷감이다. 어깨는 굽이며, 앞·뒤가 연결되어 있어 앞에서 보면 마치 T자 형태이다. 싹과 깃에 해당되는 옷감도 있다. 저고리 길이는 74cm, 화장 89cm, 진동 31.5cm, 수구 27.5cm, 품 65cm(무 제외)이다.

3) 하의

하의에는 치마와 바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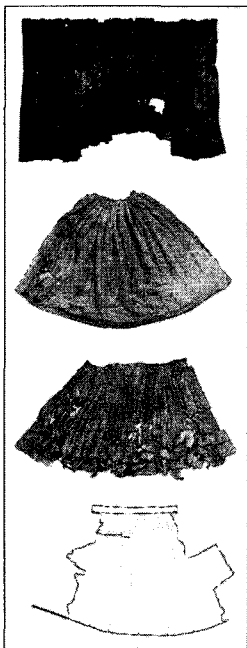
(1) 치마(그림 9)

연안김씨 묘에서 수습된 치마는 7점(표 5)으로, 홀치마 3점(No. 561 · 559 · 582) · 겹치마 1점(No. 581) · 솜치마 3점(No. 554 · 564 · 578)이다. 홀치마 3점 가운데 2점(No. 561 · 582)은 예복치마로 생각되는 치마로 '앞을 접어 걷은[dart]치마'이다. 이러한 형태의 치마 명명은 여러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고부자는 '앞걸음치마'¹⁹⁾, 박성실은 '의례용 치마'라고 표현하며 치마에 잡힌 주름을 문장에서 풀어서 설명하였다.²⁰⁾ 정미경은 '거들형 치마' 또는 '다트형 치마'라고 표현하였다.²¹⁾ 이 연구에서는 치마의 앞을 접어 앞 길이를 짧게 하여 마치 서양복 구성에서 다트를 넣은 효과를 준 치마를 '앞을 접어 걷은[dart] 치마'라고 명명한다. 솜치마 1점(No. 581)은 치마단을 접어 넣어 치마 2벌을 겹쳐 입는 효과를 나타내는 단 장식이 있는 치마이다.

겹치마 1점과 솜치마 1점에는 저주지를 심감으로

〈표 5〉 연안김씨 묘 출토 치마의 치수와 특징

| 유물 번호 | 구성 | 소재 | | | 치수 (cm) | | | | | | 주름 방향 | 치마 선단 유무 | 치마 아랫단 유무 | 특징 |
|---------|--------|-----|----|----|-------------|--------|-------|-------|-----------|-------|---------|----------|-----------|-------------------|
| | | 겉감 | 안감 | 허리 | 길이 | 나비 | 치마 폭수 | 1폭 나비 | 허리 나비/ 길이 | 주름 나비 | | | | |
| No. 554 | 숨 | 면포 | 면포 | - | 98 | 416 | 12 | 33-36 | - | 2.5 | 오른 주름 | × | ○ | 호로 찢어 사용 |
| No. 561 | 홀 | 화문단 | - | - | 130.5 (105) | 572 이상 | 9 | 63 | - | 3 | 왼 주름(?) | ○ | ○ | 중심부분13cm 접음. 예복치마 |
| No. 564 | 숨 (닥지) | 주 | 주 | - | 100 | 453 | 12 | 36 | - | 2.5 | 오른 주름 | × | ○ | 호로 찢어 사용 |
| No. 578 | 숨 | 운문단 | 주 | - | 113 | 450 | 7 | 63.5 | 7/83 | 2-2.5 | 오른 주름 | × | ○ | 습용 추정 |
| No. 559 | 홀 | 저포 | - | 저포 | 131 | 402 | 11 | 34-38 | 7/89.5 | 2.5-3 | | × | ○ | 습용(?) |
| No. 581 | 겹 (닥지) | 주 | 주 | 주 | 94 | 405 | 13 | 31-33 | 8/80 | 2-3 | 오른 주름 | × | ○ | 8cm 나비의 2중 접음치마 |
| No. 582 | 홀 | 화문사 | - | 저포 | 123 | 482 | 8 | 60 | 7/83 | 2-2.5 | 오른 주름 | × | ○ | 예복치마로 습용 추정 |



〈그림 9〉 No. 561 · 578 · 581 · 582 치마

사용하였다. 치마허리말기가 불완전하더라도 있는 것은 4점이며, 치마끈은 모두 흔적만 있다. No. 554 · 564는 치마 주름을 완전히 풀어 크게 2조각으로 나누어 염(殮)에 사용하였고, No. 561 치마는 치마 주름을 풀어 구의(柩衣)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한다. 치

마길이는 숨치마와 겹치마가 94~113cm, 홀치마는 123~131cm로 '앞을 접어 걷은[dart]치마'도 포함된다. 치마 도련나비는 402~573cm 이상으로 넓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치마허리가 남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허리둘레는 80~89.5cm이다.

(2) 바지(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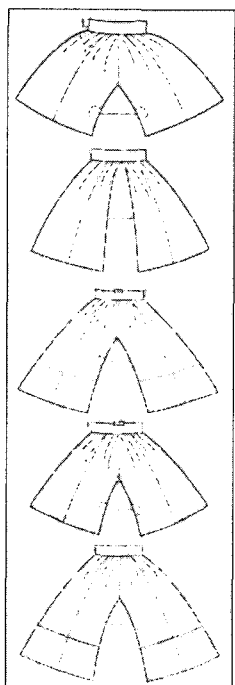
연안김씨 묘에서 바지(표 6)는 6점(No. 551 · 585~589)이 수습되었다. 연안김씨 묘에서 출토된 바지는 모두 밑이 막힌 단속곳형태이다. 이 가운데 No. 551은 보공용이며, 그 외 No. 585~589는 붉은 삼실로 허리에서 5벌이 꿰어져 습의(襲衣)로 사용되었다. No. 585가 제일 안쪽에 입었던 속옷이며, 그 위로부터 No. 586~589의 순서이다.

바지의 형태는 No. 585와 No. 586 · 588은 짧은 단속곳 형태이나, No. 587과 589는 장식단이 붙은 긴 단속곳 형태이다. 하지만, No. 588도 장식단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체에 닿은 속옷에 해당되는 2벌의 바지는 짧고, 그 위에 입은 3벌은 긴 바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깨 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도 2벌(No. 588 · 589)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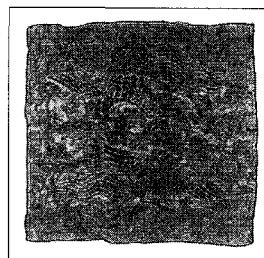
바지 길이는 74~85cm(장식단 30cm 제외)이며, 허리둘레는 81~88cm이고 바지의 옆트임인 야강이는 입어서 오른쪽에 있다.

〈표 6〉 연안김씨 묘 출토 바지의 치수와 특징

| 유물번호 | 구성 | 형태 | 소재 (상/하) | 치수(cm) | | | | 가랑이 바대형태 | 비고 |
|---------|----|------------------|-------------|-------------|-----------|----------|-----|-------------|--------------------------------------|
| | | | | 허리 나비×둘레 | 허리끈 나비 | 바지 길이 | 바지통 | | |
| No. 551 | 홀 | 단 속 곳 형 | 면포 | 9.5×87 | 4.5 | 81 | 134 | 삼각형 | 보공용 |
| No. 585 | | | 저포 | 8×81 | 4 | 85 | 121 | 사다리꼴 | 습용 No.585 ~ 589 순서대로 한허리에 팬 |
| No. 586 | | | 주 | ? | ? | 84 | ? | ? | |
| No. 587 | | | 면포 | 8×82 | 4.5 | 76+30 | 129 | 삼각형 | |
| No. 588 | | | | 8×81 | 4.5 | 74 | 114 | | |
| No. 589 | | | 저포/면포 | 9×88 | 6.5 | 80+30 | 142 | | |



〈그림 10〉 No. 551·585·587
· 588·589 바지



〈그림 11〉 No. 524 흥배

이며 세로 29cm이다. 문양의 배치 구도는 여성단령에 부착된 공작흥배와 매우 유사하다. 백한흥배는 《경국대전》에서는 문관 3품 당상관 용(用)이었으나 《속대전(續大典)》에서는 문관 당하관이 착용하게 된다.

(2) 토시

1점(No. 597)으로 자주색 연화보문단으로 만들었으며, 이 토시에는 숨이 약 2cm 들어 있다. 손목의 나비는 11.5cm이며, 아랫변의 나비는 16.5cm, 높이는 22cm의 사다리꼴이다.

(3) 베개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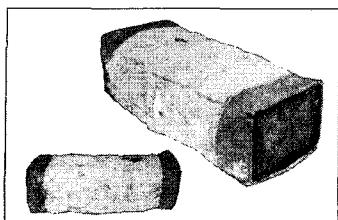
외관 바닥에서 수습된 자수 베개 1점(No. 579)이다. 2003년 자수베개의 일부가 수습²²⁾되기도 하였지만 완형의 베개가 수습된 것은 처음이다. 베개 마구리에는 양쪽에 연꽃이 피어 있고 중앙에는 수초 위에 목을 꼬고 있는 1쌍의 새를 금사와 비단색실로 수를 놓았다. 수놓인 가장자리는 끈사 2을을 반대 방향으로 놓고 징귀 테두리 장식을 하였고 그 위에 삼각형 금전지를 놓고 그물수를 놓았다. 삼각형 꼭지

4) 기타류

기타 보공용으로 흥배 1쌍·토시 1점·베개1점·번(幡) 1점·직물 3점·버선 1점·습신 1점으로 7종이다.

(1) 흥배 (그림 11)

연안김씨 묘에서는 여성단령에 부착된 직금 공작흥배와 금사 백한(白鵬) 흥배 1쌍(No. 524)이 등글게 달려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치수는 가로 30cm



<그림 12> No. 579 베개

위에는 매우 가는 실로 옆으로 된 마름모와 직선으로 장식하였다. 이와 같은 금전지에 삼각형의 망수와 같은 수 기법은 조선시대 중기의 유물과 조선시대 후기 궁중 베갯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몸체는 굵은 삼베로 만들어 완성된 베개의 크기는 높이 14.5cm, 길이 50cm이다. 중간에 속을 넣는 트임 18cm가 있다.

(4) 번(幡) <그림 13>

번이란, 불구(佛具)의 일종으로, 이 유물 1점(No. 549)은 수습 당시 대립 상태에서 대립보(大敵襟) 안쪽에 시신의 왼쪽 어깨 부분에 달려있었다. 생초(生綯) 위에 다라니가 먹으로 흐리게 인쇄되어 있다. 길이 84cm, 나비 42cm이다.

이와 비슷한 유물이 파주 금릉리 정온(鄭溫 : 1481~1538) 묘에서 출토되었다.²³⁾



<그림 13>
No. 549 번(幡)

(5) 직물편

직물편 3점으로 두록색 운문라 조각(No. 525·526)과 자주색 운문수파문단 직물 1조각(No. 575)이 수습되었다.

(6) 버선

습에 사용된 버선(No. 580)으로, 3컬레를 껴 신은 형태로 수습되었다. 제일 안에 신은 버선은 삼베로 만든 겹버선으로 회목아래에는 솜을 얇게 두었다. 그 위에는 고운 면포로 만든 홀버선을, 겉에는 삼베로 만든 홀버선을 신었다. 버선의 치수는 버선목 18cm, 회목 20cm, 길이 24cm, 발길이 22cm이다.

(7) 습신

습용으로 만든 신(No. 567)으로 닥지로 만들었다. 길이 25cm, 나비 9cm, 뒷축 높이는 5cm이다.

Ⅲ. 연안김씨 묘 출토 복식의 특징

연안김씨 묘의 복식은 전형적인 16세기 여자복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흉배가 달린 여성 단령이 습용의 상복(上服) 즉 예복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장옷과 저고리·치마 등의 크기가 크고 너박한 형태는 16세기의 전형적인 복식으로, 장옷과 저고리의 수구 끝의 거들지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태수의 형태이다.

셋째, 보공용으로 사용된 깃 나비가 좁은 비대칭 삼각무가 있는 마포나 저포 적삼이 수습된 것이다. 고대와 깃 나비가 좁은 적삼은 16세기의 특징이다.

넷째, 연안김씨 묘에서 출토된 저고리 가운데 길과 깃 그리고 끝동 까지 같은 옷감으로 만든 저고리는 2점 밖에 없다. 다양한 길이, 길과 소매 그리고 깃 등에서 옷감과 배색을 달리한 디자인이 저고리에 적용되었다. 저고리의 넓은 끝동 나비 또한 16세기의 경향이다. 저고리의 옷고름은 모두 제거된 상태이나 옷고름의 나비는 2.5cm 내외로 추정되며, 속고름은 없다.

다섯째, 치마 가운데 '앞을 접어 걷은[dart]치마'와, 치마 도련을 접어 올려 마치 치마 2벌을 껴입은 듯한 치마가 수습된 것이다. 이러한 치마의 형태는 16세기와 17세기 초의 전형적인 여자 복식의 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치마는 17세기 중후기에 비해 길이는 길고 치마의 전체 폭도 넓다.

여섯째, 습용으로 사용된 바지 가운데 어깨 끈이 달렸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도 있다.

일곱째, 다양한 바느질법이 사용되었다. 홉질·박음질·말아감치기·옛쌈술·통술·두땀 상침이 사용되었다. 바지류에는 색실을 사용하여 장식의 효과를 준 것도 있다. 시접 처리는 옷감이 두꺼우면 상의류의 섶 등에서도 가름술을 사용하였으며, 식서에 가윗밥을 넣어 옷감이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였다. 저고리와 장옷·치마에는 저주지 사용이 많았다.

연안김씨 출토 복식은 위에서 언급한 16세기의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만, 연안김씨 복식에서만 나타나는 특징도 있다.

첫째, 신분과 맞지 않은 흉배의 사용이다. 연안김씨는 상복(上服)으로 직금공작 흉배가 부착된 여자 단령을 착용하고 있으며, 보공용으로 직금백한흉배도 1쌍 수습되었다. 이는 조선전기 기록인 양성지(梁誠之)의 《눌재집(訥齋集)》에서 “양반 부녀자까지 ‘원삼(圓衫)’이라는 것을 지어입고 흉배를 붙인 채 백주에 대로를 다니면서 조금도 꾀이함을 모른다”²⁴⁾는 기록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연안김씨의 남편인 홍몽남의 벼슬과 이 공작흉배와는 맞지 않는다. 남편인 홍몽남의 벼슬은 승정원 좌승지로 추증되었으며, 족보에는 생존하였을 때 벼슬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시가에서는 연안김씨의 시숙부(媿叔父)인 홍연(洪淵: 1526~1586)이 이조참판을 지냈다. 연안김씨의 단령에 부착된 직금공작 흉배에 관한 추론은, 연안김씨의 친정과 결부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문제점이 있다. 조부인 김근사(金謹思)는 영의정을 지냈지만 연안김씨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떴고, 아버지인 김부(金溥)는 정4품인 전첨(典籤)을 지냈기 때문에 공작흉배와는 맞지 않는다. 단령에 부착된 공작흉배는 연안김씨의 물년 즈음에 신분과 맞지 않는 흉배 사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생몰년이 16세기 중후기로 추정하는 진주류씨 부부의 합장묘에서 출토된 직금호표(虎豹) 흉배 또한, 피장자의 신분과는 일치되지 않는 흉배의 사용 경우이다.²⁵⁾ 이를 근거로 볼 때 16세기 중후기에는 흉배 문양 사용이 엄격하게 지켜지

지 않았던 시기라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둘째, 습의(襲衣)로 적삼류 3벌을 꺼입었다. 습용 적삼은 모두 저고리에 비해 화장이 짧으며, 옷감은 주(紬)로 만들었다. 깃과 무 모양이 다양하며 겹적삼도 수습되었다.

셋째, 당한삼(唐汗衫) 2점이 수습되었다. 당한삼은 화장이 108~112cm로 연안김씨 묘에서 출토된 저고리의 화장보다 10cm 이상 길다. 당한삼 2점은 운문사와 무문사 그리고 화문초로 만들었으며 바느질이 매우 섬세하고 곱다. No. 546 당한삼은 습용이며, 저고리 위에 입혀졌던 것으로 추정한다.

넷째, 속옷인 바지는 밑이 막힌 단속곳류만 수습되었다. 바지의 옆트임은 모두 입어서 오른쪽에 있다. 제일 겉에 입은 바지는 고운 면포 밑단을 붙여 길이를 길게 하였다. 제일 속에 입은 바지는 삼베이며, 주(紬)로 만든 바지는 3번째에 입혀졌고, 어깨 끈이 달렸던 흔적이 있는 바지도 2점이 있다.

다섯째, 보공용으로 불구(佛具)의 일종인 번(幡)이 수습되었다. 다라니(多羅尼)가 적힌 번(幡)이 상례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16세기 사대부가와 불교의 연관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수베개 완형이 처음으로 출토되었다. 이는 생활품인 16세기 베개의 실체와 자수법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여섯째, 다른 16세기 출토복식에는 누비옷이 다수 수습되었으나²⁶⁾ 연안김씨 묘에서는 남성복식인 액주름 1점이 유일한 누비옷이다.

일곱째, 연안김씨 상례에 사용된 복식의 특징은 포류와 상의류의 옷고름과 동정, 그리고 치마와 바지의 허리끈을 모두 떼어 낸 것에 있다. 이는 남양홍씨가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장옷과 치마를 1로 나누어 보공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수례지의(緜禮之衣)로 사용된 옷은 액주름 1점이다.

IV. 결론

2000년 3월 18일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316번지 남양홍씨 예사공파 묘역 이장 작업 중 홍몽남(洪夢男: 1534~1574)의 배위 연안김씨 묘에서 복식과 치관제구를 포함한 77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를 조

사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김씨의 복식은 전형적인 16세기의 여성 복식이다. 연안김씨의 물넛은 알 수 없지만, 복식 형태와 직물과 직물문양으로 보아 고려대학교 소장 파평윤씨(1566년) 복식과 가장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연안김씨의 물넛은 남편인 홍몽남보다 이르며, 연안김씨의 복식은 16세기 중기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16세기 중기까지 장옷과 저고리는 넓은 끝동이 달려있으며, 속고름은 없다. 연안김씨의 복식을 통하여 16세기 중기에 남양홍씨 예사공파 가문은 다양하고 화려한 의생활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습의로 직금공작 흉배가 부착된 여성단령을 착용하고 있는 것은, 여성단령이 16세기의 여성 예복으로 상복(上服)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옷이 평상용 예복으로 착용이 되었다면 현재 '여성단령'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복식의 명칭에 대해서도 연구가 계속되어 합당한 명칭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피장자인 연안김씨 남편의 벼슬과 맞지 않은 흉배의 문양은, 16세기의 흉배 부착에 많은 의문을 주고 있다. 여성단령에만 흉배 사용이 예외로 적용되었는지, 남성의 관복에 부착한 흉배와 비교 연구할 문제라 생각된다.

넷째, 대령용으로 사용된 불구(佛具)의 일종인 번(幡)을 통하여 남양홍씨 가문의 종교와 미래관을 엿볼 수 있다. 연안김씨와 동시대인 정온(鄭溫 : 1481~1538)의 유물과 비슷하여 다라니가 찍힌 번(幡)의 사용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16세기의 특수한 경우로 꼽을 수 있겠다. 또한 대령용으로 수습된 베개에 자수된 문양과 자수법 그리고 베개의 구성법은 그 당시 생활 용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수습된 유물을 통하여 상장례법을 알 수 있었다. 완전히 제거된 옷고름·동정·허리끈 등은 동시대의 다른 가문과 구별되어 가가례(家家禮)가 지켜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송미경 외 (2005).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수원: 경기도박물관.
- 3) 위의 책, pp. 16-17. 만사의 내용은 찢어져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누이와 질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 담겨져 있다.
- 4) 이하 No. 는 경기도박물관 소장 참고 유물 번호이다.
- 5) 조효숙 (2005). 연안김씨 묘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수원: 경기도박물관, p. 187.
- 6) 송미경 (2002). 조선시대 여성단령에 관한 연구. 복식 52(8), pp. 151-160.
- 7) 박성실 (2005). 임진왜란 전후 출토단령의 실증적 고찰. 금신단 치마 입고 어디 다녀 오셨을까. 서울: 민속원, pp. 256-287.
- 8) 이미식 외 (2006).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인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pp. 113-116.
- 9) 이은주 외 (2001).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박물관, pp. 33-38.
- 10) 이강철 외 (2003). 역사인물초상화 대사전. 서울: 현암사, p. 85.
- 11) 박성실 외 (2003). 坡平尹氏 母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 2. 서울: 고려대학교 박물관, pp. 21-28.
- 12) 위의 책, p. 123.
- 13) 이은주 외 (2000).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박물관, p. 199.
- 14) 박성실 외 (2006). 중요민속자료 ② 복식·자수 편 문화재대관. 대전: 문화재청, pp. 304-305.
- 15) 박성실 외 (2003). 앞의 책, pp. 37-59.
- 16) 위의 책, pp. 196-201.
- 17) 이은주 외 (2001). 앞의 책, pp. 42-48.
- 18) 송미경 외 (2007). 김학 합장묘 출토복식. 수원: 경기도박물관, pp. 236-260.
- 19) 고부자 (2007). 大田 出土 江陵 金氏(女, 朝鮮 前期) 遺物. 한국복식, 25, p. 56.
- 20) 박성실 외 (2003). 위의 책, pp. 64-68.
- 21) 박성실 (2005). 위의 책, p. 164.
- 22) 송미경 (2003). 비무장지대 한산이씨 묘 출토복식 고찰. 비무장지대 도라산유적. 서울: 경기도박물관·세종대학교박물관, pp. 317-351.
- 23) 박상국 (1998). 파주 금릉리 慶州 鄭氏 墳墓에서 出土된 服飾에 關한 陀羅尼와 佛敎符籙. 한국복식, 16, p. 3.
- 24) 梁誠之, 訥齋集, 卷四, 四十九
- 25) 송미경 외 (2006).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복식. 수원: 경기도박물관, pp. 144-148.
- 26) 박성실 외 (2003). 앞의 책, pp. 83-111.

참고문헌

- 1) 박성실 (2006). 출토복식을 통해 보는 임진왜란 이전 남녀복식의 조형적 특징. 한국복식, 24, pp. 99-132.